

글. 이세준

한황수 작가는 자신의 작업을 설명하기에 앞서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하다가 자퇴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주어진 답을 찾아가는 학문에서 어떤 회의감을 느끼고 이미 정해진 하나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닌 다른 분야의 공부를 하고 싶었다고. 그렇게 선택된 분야가 예술, 그 중에서도 사진이었다. 사진이란 매체를 선택한 동기가 무겁지 않았던 만큼 작업의 접근방식도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만나온 작가들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졌다.

이번 전시에서는 크게 4가지 정도의 작업유형을 보여주었는데 그것 중 대부분 작업이 아주 단순한 계기에서 작업이 출발하고 진행하면서 다듬어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레고 블록을 주어진 매뉴얼대로가 아닌 스스로 만들어 나가면서 그 과정을 찍은 'Freelancer'라는 작업의 동기는 버려진 레고 블록을 길에서 줍는 것에서 출발한다. 작가는 우연히 획득한 블록을 가지고 작업의 구조를 만들고, 작업을 하나하나 진행해 가면서, 즉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형적인 측면을 다듬는다. 영상+사운드 작업인 'Antarctic Adventure'역시 도 비슷한 과정을 가진다. 외부에서 주어진 조건(여기서는 작가가 듣는 사진 수업의 과제로) '명동 시내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사진을 촬영하면서 작업의 개념을 구성하고, 모인 사진을 보고 내용을 만들고, 자신이 과거에 플레이했던 게임의 형식을 차용하면서 작업을 완성한다.

나는 이런 귀납적인 작업 진행방식이 작가의 작업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포인트인 동시에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만난 많은 작가는 연역적인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말하고자 하는 것, 표현하고 싶은 주제에 맞춰 소재와 매체를 찾고 형식을 고민하며 진행한 성공적인 작업은 구조와 내용이 상호작용하며 명확하다. 그러나 한황수 작가의 작업은 때때로 주제가 모호하거나 형식과 내용이 부조화하기도 한다. 일부의 관람자는 이 전시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고 묻기도 한다. 그러나 작가 자신도 앞으로 어떤 것을 보여주게 될지 완벽히 모르는 아이러니야말로 한황수 작가의 작업을 흥미롭게 만드는 지점이기도 하다. 비록 전시가 향하고 있는 지점은 모호하지만, 작가의 작업과정을 이해하고 작업을 본다면 그 안에 숨겨진 태도를 읽을 수 있다. 명료하지 않고 다층적인 레이어를 자연스럽게 내재한 그의 작업은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해석의 범위를 확장하며 답을 찾지 않고 스스로 답을 정하는 작가의 방식은 '내가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라는 전시의 제목으로 완성된다.